

초등 사회과에서 역사적 관점을 활용한 다문화 이해 학습방안 연구

A Study on Learning Method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from
Historical Perspective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강 필 규*

< 국문 초록 >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에서 여러 문화를 윤연중에 서열화하는 편견에서 벗어나고,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를 갖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사회과교육에서 역사적 관점을 활용한 다문화 이해 학습방안을 계발하고자 한다. 다문화 이해에 있어서 역사적 관점의 활용은 다양한 문화의 과거를 다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다문화 이해와 역사적 관점의 개념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다문화 이해를 위한 역사적 관점의 활용방안을 '편견 발견하기 - 차이 인정하기 - 문화의 보편성 이해하기'의 세단계로 구성하였고, 다문화가정이 아닌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학습의 효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되는 편견에서 벗어나고, 다른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기를 수 있다.

둘째, 극단적인 자문화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으로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서구의 문화를 우수한 문화로 생각하는 문화사대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다문화에 대한 교육이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들의 적응을 위해서 실시되었다면, 본 연구를 토대로 다문화에 대한 교육이 대상이 일반 학생으로 바뀌어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데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다문화 이해, 역사적 관점, 문화편견, 초등사회과

* 인화초등학교 교사(picknew@hanmail.ne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다문화교육의 대부분은 소수자 입장에 있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세터민 등의 사회 적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지금까지 연구된 다문화교육의 대부분은 다수자의 의식변화에 대한 교육보다는 소수자인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보호, 관리 및 사회 적응 교육방법에 대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소수자인 다문화가정을 사회에서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한국 문화에 하루 빨리 적응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문화 사회에서의 사회 적응은 소수자인 외국인, 다문화가정, 세터민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나머지 사회 구성원인 일반 시민들이 그들을 인정했을 때에 그들은 큰 문제없이 우리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수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마음을 굳게 닫고 있어서 소수자인 다문화가정들은 사회 적응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피부색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외국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서양인은 우대시하고 동양인은 비하하는 사회풍조가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의 모습과 현상들을 편견 없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교육에서 다수자인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른 문화의 이해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문화를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문화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교육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사회과교육에서 역사적 관점의 활용은 다문화 이해를 위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역사적 관점은 대상에 대한 과거의 사건 및 옛사람들의 행위와 사상, 감정 등을 탐구하고 상상적으로 이해하며,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모습 사이의 인과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역사적 관점의 특징은 다문화 이해에서 다른 사회와 문화를 이해할 때에도 활용될 수 있다. 역사적 관점을 통해 다른 문화를 외모적 특징만 보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화적 특징을 갖게 된 과거의 사건들과의 인과관계와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양한 문화의 이해를

통하여 다문화 사회에서 부딪히는 많은 갈등을 해소하거나 완화시키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내용과 방법

위에서 말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이해의 필요성과 다문화 이해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역사적 관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다문화 이해를 위해 사회과교육에서 역사적 관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다문화 이해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내용과 역사적 관점이 활용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선정된 분석 방법 및 기준에 따라 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해 다문화 이해를 방해하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역사적 관점의 활용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셋째, 위에서 알아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사회과수업에서 역사적 관점을 활용한 학습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문화편견 해소를 위한 학습 방향을 살펴보았다. 그런 후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문화편견의 해소를 위한 학습단계를 제시하고, 단원 수업의 교수·학습 과정 안을 구안해 보았다.

II. 다문화 이해와 역사적 관점

1. 다문화 이해의 필요성

우리 사회에서 ‘다양성’이란 개념이 새로운 화두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한 다양성의 양상은 문화적, 민족적, 언어적 다양화로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보고(2009)를 보면 국제결혼은 39,071건으로 한해 결혼 신고건수의 11.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도 100만 명에 다가서고 있으며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화와 다문화적 사회현상의 흐름에도 우리사회는 여전히 단일민족의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미국과 같은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살고 있는 나라에만 다문화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나라나 민족에 대하여 매우 편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문화적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형성되기도 전에 우리 사회와 교육현장에는 별씨 여러 민족의 모습을 가진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져 있으며 원어민 강사의 이중 언어 교육은 자연스런 교육의 한 트렌드로 받아들여지고 선호하는 경향까지 보인다.

이렇듯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한 다문화적 시대상황은 교육에 대한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 이 가운데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의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과 다문화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시각과 사고방식, 지식과 기술, 인식과 태도를 함양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교육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우려와 고민을 갖게 한다.

2. 다문화 이해의 개념

다문화 이해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서양의 다문화 교육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다문화 소양(Multicultural literacy)¹⁾교육을 살펴보면서 그 개념의 실마리를 찾겠다. Garcia(2003)는 다문화 소양 교육이라고 일컬어지는 교육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다양한 문화 집단을 다른 텍스트를 교실 수업에서 소개하는 것을 다문화 소양 교육이라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학생들의 사회 문화적 환경이 지식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구성주의의 논의에 기초하여,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다문화 소양 교육에 접근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다문화 소양을 비판적 사고를 통하여 교육하는 것이다.

다문화 교육의 차원에서 다문화 소양 교육은 학생들이 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다양한 시각과 가치가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나의 시각과 타인의 시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문화 소양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읽기, 쓰기 능력 및 다른 문화의 관점으로 사고하는 능력, 다문화 사회에 대한 태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다문화 소양 안에 다문화 이해는 포함되어 있다. 다문화 이해는 다문화 소양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과 태도이다. 만약 다문화 소양 교육에서 다문화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읽기, 쓰기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이 다문화 소양을

1) literacy는 일반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자해독력, 독해력, 문해력 등으로 번역된다. 문해력이 가장 좋은 기의를 나타내지만 문맥에 따라 활용 능력, 소양, 교양 등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다문화 소양(multicultural literacy)란 다문화사회에서 필요한 민주적 가치와 태도, 지식, 기능 등을 포괄적으로 함축하는 용어이다.

갖게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다문화 이해는 다문화 소양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는 요소이다.

정리해보면 다문화 이해란, 어떤 하나의 문화가 갖고 있는 논리와 기준을 가지고 다양한 모든 현상들을 규정하려 하지 않고 각 현상들의 형성과정 및 배경과 환경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현상을 이해하려는 방식이며, 그 문화 안에서 갖는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러한 자세로써 우리와 삶의 양식이 다른 사람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각 문화가 지닌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다문화 이해 교육이다.

3. 다문화 이해에서 역사적 관점의 의의

가. 역사적 관점의 의미

역사는 인간의 과거를 대상으로 한다. 즉 역사의 주요 관심은 과거에 발생했었던 인간의 삶의 모습을 되살펴 보는 것이다. 물론 역사는 인간 생활의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에 발생한 자연적 사건들 또한 기록한다. 그러나 역사에 이러한 사건들이 기록된 이유는 그 사건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무엇이 일어났는가의 문제, 혹은 발견되고 전달되기 위해 존재하는 진리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우리가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은 무엇인가, 과거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에 있어 이러한 탐구는 역사가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역사가들은 인간의 과거를 연구의 일차적 대상으로 삼고, 탐구를 통해 이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역사가 인간의 과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역사를 기술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인의 심리와 그들의 행위의 배후에 있는 사상을 상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과거를 볼 수 있고, 과거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역사는 과거의 인간 행위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는 것으로서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행위와 사상, 감정 등을 탐구하고 상상적으로 이해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역사적 관점의 의미를 정의해 보면, 대상을 바라볼 때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 및 과거인의 행위와 사상, 감정 등을 탐구하고 상상적으로 이해하며, 역사적 문제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역사이해에 도달하려는 복합적인 사고의 기본 출발점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역사가가 역사를 연구하고 역사 문제를 다룰 때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역사적 관점을 활용한다는 것

은 학생들이 이해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 역사가처럼 사고하고 판단하게 한다는 것이다.

나. 역사적 관점의 특성

역사적 관점을 “역사가가 역사를 연구하고 역사 문제를 다를 때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라고 한다면, 역사가들이 연구하는 학문인 역사학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역사적 관점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역사학의 특성을 여섯 가지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학은 간단히 말해서 과거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조사하며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역사학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중시한다. 시간의 이해와 함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게 되며, 인과관계, 계속성, 그리고 변화에 대한 관념들이 갖추어지게 된다. 셋째, 역사학은 증거를 중요시한다. 넷째, 역사연구는 개별적인 것들과 일반화의 관계를 훈련시키며, 수많은 자료들의 조직과 분류, 그리고 그것들을 문제 해결에 적절하게 응용하는 방법들을 알게 하며, 지식의 정보와 비판 및 추론의 훈련을 통한 상상력을 통해 역사에 대한 이해와 판단 능력을 갖게 한다. 다섯째, 역사적 이해를 위해서는 자료에 대한 다양한 해석, 인간 행위에 대한 재연 또는 감정이입적 이해를 통한 상상적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적 관점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관점은 시간을 중요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역사적 관점은 연속성과 변화, 변화의 원인, 양상, 결과를 탐구하여 그들 사이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역사적 관점은 증거에 대한 탐구와 비판, 추론의 훈련을 통해 육성되는 관점으로서 증거에 기초하여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셋째, 역사적 관점은 직관적이며 사건의 유사성보다는 개별성과 다양성에 관심을 가진다. 넷째, 역사적 관점은 상상적 이해를 통해 증거의 간극을 메우고 과거의 사건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행위와 사상을 상상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관점의 특성에 비추어, 앞서 제시한 ‘가족’을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먼저 시간에 따라 가족의 변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그 변화에 따라 가족에게 생긴 일을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가족사진을 통해 과거의 가족 모습을 기억하고, 상상할 수 있다. 또한 과거의 사건을 통해 우리 가족이 이곳에 살고, 이러한 생활 모습을 띠고 있는지 추론하고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역사적 관점은 대상에 대한 과거의 변천과정이나 인과관계를 통해 상상하고 추론해 보는 관점이라 볼 수 있다.

다. 다문화 이해에서 역사적 관점의 기능

위에서 살펴본 역사적 관점이란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역사적 사실의 암기로서 과거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현상에 대한 변천과정과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의 파악을 통해 비판적 판단하는 시각이다. 이러한 역사적 관점은 다른 문화들과의 접촉이 쉬워지고, 그에 따르는 이해관계의 문제가 늘어나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집단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이해에서 역사적 관점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첫째, 학생들은 역사적 관점의 활용한 학습을 통해 각 시대와 각 지역의 다양한 인간의 삶을 그 시대의 관점과 그 지역의 관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역사 속에 있는 다양한 문화들과 집단들의 다양성에 대해 배움으로써 다른 문화들을 자문화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다른 문화 그 자체로 인정할 수 있다. 셋째, 역사적 관점을 활용하면 세계의 다양한 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며, 문화적 교류로 서로 발전하는 관계로 받아들이게 된다. 넷째, 학생들은 문화적 차이 이해를 통해 인종주의 편견과 차별주의를 없애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관점을 활용하면 감정이입하여 각 문화의 역사적 사실과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며 자신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III. 다문화 이해 관련 교육과정 내용분석

1. 분석 단원 선정

본 연구에서는 6학년 2학기 단원 중 세계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2단원 ‘함께 살아가는 세계’를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 단원은 세계지리 영역으로 볼 수 있으나 지리적 접근과 더불어 각국 사람들의 생활모습이나 문화 등 주변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문화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내용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를 알려주는 내용도 많이 나타나 있어 분석단원으로 선정하였다.

‘함께 살아가는 세계’는 세계와 관련된 영역으로서 각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나 문화 등 세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조사하는 방법을 통해 세계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및 지구촌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지리적 의존 관계와 지구촌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점 모색 등에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내용 분석 방법 및 기준

다문화 이해와 관련한 교과서 내용의 분석방법은 교과서에 나타난 여러 지역에 대한 문장과 삽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대륙별로 교과서에 서술된 횟수를 알아보고,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되는 지역을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각 지역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 항목을 중점적으로 나타냈는지에 대해 분석하겠다. 또한 역사적인 내용이 포함된 부분을 찾고, 그 내용을 토대로 다문화 이해를 위한 역사적 관점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 보겠다.

사회과 교과서 내용분석의 기준은 사회과 교과 목표 중 영역별 목표에 나타난 목표요소를 중심으로 ‘지리,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능·능력, 가치·태도’ 8가지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위의 기준항목 중 ‘기능·능력’과 ‘가치·태도’ 항목은 각 지역 또는 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고, 세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능과 세계에 대한 학습에서 비롯되는 가치 및 태도와 관련이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 및 삽화 분석에서는 두 항목을 제외하였다.

제외한 두 항목을 뺀 나머지 6개의 기준항목을 토대로 먼저 교과서의 서술과 삽화가 나라와 지역, 인종과 관련되어 나왔을 경우를 다문화 이해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고 내용의 빈도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각 문화를 서술하는 관점을 파악하고, 각 문화를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런 후에 역사 영역에 서술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세계 내용을 다루는 단원에서 역사 영역은 어떻게 서술되고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쳐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3. 다문화 이해 관련 내용 분석

가. 지역별 내용제시 횟수

교과서의 내용구성 상 6학년의 내용주제는 ‘지구촌 시대의 우리’로 설정되어 있어서 비교적 다양한 세계화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교과서 내용분석을 실시한 단원인

'2. 함께 살아가는 세계'는 세계지리 영역의 내용이지만 지리적 내용으로만 내용구성을 한 것이 아닌 여러 항목의 내용을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교과서 내용을 구성하여 다문화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위의 분석 방법과 분석 기준에 따른 사회과 6학년 2학기 교과서의 '2. 함께 살아가는 세계' 단원의 분석 결과는 다음 <표-1>와 같다.

<표 1> '2. 함께 살아가는 세계' 단원의 교과서 내용, 삽화의 지역별 제시 횟수

지역	지리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합계
아시아	10	7	0	41	10	5	73
유럽	3	4	1	9	4	15	36
북아메리카	1	1	1	15	3	0	21
남아메리카	3	1	0	5	1	0	10
아프리카	0	0	0	0	6	0	6
오세아니아	0	0	0	3	0	0	3
합계	17	13	2	73	24	20	149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관계가 깊은 아시아에 대한 내용이 많이 교과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내용은 유럽에 대한 내용이며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순이었다. 이는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관계가 깊은 나라의 내용이 교과서에 많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를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교과서에 제시된 지역별로 편중된 내용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횟수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은연중에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나라와 교과서에서도 나오지 않는 우리와는 관계없는 나라로 비춰지기 쉽다. 그리고 여러 항목 중에서 경제 항목에 교과서 내용이 지나치게 편중되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경제 교류가 많고,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는 좋은 나라, 그렇지 못한 나라는 나쁜 나라라고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경제적으로 수입을 얻기 위해 우리가 이용하고 돌파해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하기 쉽다.

나. 역사 항목 내용 분석

'함께 살아가는 세계' 단원에서 역사 항목의 내용은 정치 항목을 다음으로 적게 제시되었다. 이는 지리적 내용을 많이 다른 단원이라 상대적으로 역사 항목의 내용을 적었다고 생

각되어진다. 그러나 역사 항목의 내용은 각 문화의 흥망성쇠를 다룬 과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학생들의 다문화 이해에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과서에 서술된 문장을 살펴보면서 다문화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보았다.

<표 2> '2. 함께 살아가는 세계' 단원 중 역사 항목의 문장

대륙	역사 항목의 문장	쪽수
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으로 가까운 세 나라가 오랜 옛날부터 서로 문화를 주고 받았기 때문이다. (중국, 일본) · 우리 동포들은 독립 운동을 위해 만주 일대에 많이 이주하여 살았으며,(중국) · 황허 강은 매우 큰 강으로, 일찍이 이 곳에서 세계적인 문명이 발달하였다. (중국) · 상하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있던 곳으로, 우리나라 독립 운동의 근거지였다. (중국) ·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은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끌려갔거나 돈을 벌기 위해 건너간 경우가 많으며, (일본) · 일본은 삼국 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와 관계를 맺어 왔으며, 특히 삼국 시대에는 우리나라와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삼국의 기술과 학문, 종교가 일본에 전해졌으며, 일본의 나라 지방에는 우리 삼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문화재가 많이 남아 있다.(일본) · 여러 나라는 한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지만, 지금은 독립하여,(동남 아시아) 	72 73 73 73 73 75 75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 강점기에 독립 운동이나 강제 이주로 건너간 우리 동포가 많이 살고 있다.(우즈베키스탄) · 러시아는 소련이 무너진 뒤 독립 국가 연합을 이끌게 된 나라로,(러시아) · 소련이라는 이름의 공산 국가였을 때에는 우리나라와 거의 교류가 없고 북한과 가까웠으나,(러시아) · 유럽은 역사가 깊고 많은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다.(유럽) 	78 79 79 86
북아메리카	· 6·25 전쟁 때에는 유엔군으로 참전하여 우리나라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미국)	77
남아메리카	· 여러 나라는 한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지만, 지금은 독립하여,(남아메리카)	85
아프리카	· 없음	-
오세아니아	· 없음	-

종합해보면 세계에 대한 단원인 ‘2. 함께 살아가는 세계’에서의 역사 내용은 절대적인 양에서도 부족하지만 그 내용에서도 현상과 원인에 대한 연결성이 부족하여 편견을 만들기가 쉬웠다. 예를 들어 유럽의 역사내용은 ‘역사가 깊고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장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다른 문화에 비해 우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에 대한 역사 내용은 ‘여러 나라는 한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지만, 지금은 독립하여’에서 추측해 볼 수 있듯이 식민지 시절이 있었으며 독립하여 현재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나라로 비춰지고 있다. 오세아니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역사내용은 전혀 다루지 않음에 따라 오세아니아와 아프리카는 역사가 없는 나라로 비춰질 수 있다.

이처럼 교과서에 제시된 역사 내용이 편재됨에 따라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각 지역과 문화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교과서에 ‘역사가 깊고, 문화유산이 많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등 긍정적으로 묘사된 지역과 문화는 좋은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반면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다.’, ‘우리나라와 교류가 거의 없었다.’ 등 부정적으로 묘사된 지역과 문화는 상대적으로 나쁜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문화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져 그 문화를 바라볼 때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4. 분석 결과: 다양한 유형의 문화편견

현행 사회과교육과정에서는 환경확대법에 의거하여 내용을 선정하여 세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은 우리와 관계 깊은 나라들 위주로 세계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된다. 물론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스스로 여러 나라와 문화들을 조사하여 학습할 수 있지만, 낯선 문화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자세하게 다루어지는 문화와 다루어지지 않는 문화가 생기게 된다. 실제 교과서에는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에 대해서는 경제적 협력관계에 대해서만 다를 뿐, 문화나 생활양식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편재된 내용의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문화에 상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된다. 또한 경제적으로 관계가 깊은 나라를 중심으로 세계를 다룸에 따라 과학과 기술이 발달이 곧 문화의 발달로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서양 문화가 우수한 문화로 느끼기 쉽게 된다. 이는 곧 문화편견으로 발전하여 다문화 이해를 어렵게 한다.

이러한 다문화 이해를 방해하는 문화편견을 내용분석을 토대로 하여 크게 세 가지(단일 민족에 대한 자부심, 서양에 대한 동경, 시공간적 거리두기)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겠다.

가.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으로서 한반도 주변에서 약 5000년의 역사를 지내온 문화를 지닌 나라이다. 이러한 문화적 특징은 단일 민족으로서의 우리 민족과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교육과 사회풍조로 이어졌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한민족의 우수성을 내세워 다른 문화에 대한 배타성을 지니게 되었고, 무조건으로 우리 문화가 우수하다는 의식이 생기게 되었다. 예를 들어 세계화를 다루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러하다. 예를 들어 세계화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과 세계화에 대한 교육의 방향은 세계란 우리 민족이 돌파해야 할 대상이고, 우리 민족의 우수한 우리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와 교역을 넓히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테에 초점이 있다. 이는 다문화 이해의 필요성을 다양한 문화의 공존에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발전을 위해 다른 문화를 알아야 한다는 사고에 기초한다.

그리고 역사적 배경, 지리적 특성 및 국민들의 사고방식 등 전혀 다른 문화가 우리 사회에 퍼졌을 때에는 우리의 관점으로 그 문화를 평가한다. 이는 사회과에서 세계에 대한 내용은 다루어지나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우리와 경제적, 문화적으로 관계 깊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내용 구성은 다른 나라의 문화의 이해나 다른 문화와 우리 문화의 공존에 대한 다문화 이해는 사회과교육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은 효과적인 다문화 이해를 위해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의식과 포용적인 태도를 지녀야 하는데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은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자세로 일관하게 되어 그러한 태도를 갖는데 어려움을 갖게 한다. 다른 문화의 유입에 대한 거부는 우리 사회에서 늘어가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많이 발생하게 된다.

나. 서양에 대한 동경

오늘날 세계 모든 대륙에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세계화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사회의 방향도 변화하여 왔다. 그리고 사람들은 세계화를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으로 보고, 세계화가 사고 및 행동의 가치를 논하는 기준이 되었다. 이는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첫 번째 배경에서 ‘정보화·세계화·개방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시민적 자질, 지식관, 교육관, 학생관의 변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화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화를 강대국의 지

배내지 신제국주의 논리로 보기도 한다. 세계화를 피할 수 없는 대세로 보더라도 어떤 국가나 지역을 단위로 볼 때 일어나는 영역 간 발전의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여기서 말하는 불균형은 단지 경제적인 발전의 불균형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지역이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역시 이 불균형의 범위 안에 속해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무의식적으로 사고되고, 습관적으로 말하여지며, 당연히 그렇게 여겨지는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세계의 여러 나라를 바라볼 때 무의식적으로 호·불호가 구분되어지는 것, 소설이나 영화에서 등장하는 서양인과 동양인의 모습과 전형적인 선인과 악인의 모습, 일상생활에서 백인, 황인과 흑인을 미주할 때의 마음가짐 등이 있다. 위의 예에서 추리해 볼 수 있듯이 세계화와 더불어 확산되고 있는 것이 문화적 편견이며 그중에서도 서양문화에 대한 막연한 동경에 대한 비중이 크다.

이러한 서양문화에 대한 동경은 제국시대의 산물이라 볼 수 있는 오리엔탈리즘에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오리엔탈리즘이란 Said(1991)가 제시한 개념으로써 동양에 대한 서양의 사고방식을 뜻한다. 유럽에서 태동한 서양 제국주의의 역사를 시작으로 전 세계의 서구화로 진행되어온 역사 속에서 각각의 동서양의 문화들은 복합적이고 혼합되어서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리엔탈리즘은 복합적이며, ‘현재 진행 중인’ 동양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서양의 시선이 ‘만들어낸’ 동양적 모습으로서의 동양만을 존재하게 했다. 동양의 국가들이 서양에 의해 수동적으로, 서양의 근대화 이후에 근대화되었기 때문에 항상 서양의 과거일 수밖에 없다는 서양 중심주의의 역사적 인식을 동양의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내면화 한다.

오리엔탈리즘의 내면화는 서양적 세계화의 정당성을 제공하며, 서양과 비슷한 발전의 형태가 보편적인 발전의 모습이라는 근대의 이데올로기를 확대, 재생산한다.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에 의해 사람들은 서양에 대한 무조건적인 선망, 동경, 기대가 생기게 된다.

다. 시공간적 거리두기

우리 사회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모습은 한국의 10년 전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문장을 통해 문화적 편견은 단적으로 들어난다. 많은 이의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문화적 편견은 서구를 우리의 미래로, 저발전 국가들을 우리의 과거로 일직선상에 배치하여 생각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편견은 각각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며,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들의 문화를 기준으로 이식과 변형으로서만 타문화를 인식하는 사고방식이다. 이와 같은 사고의 방식을 문화

인류학자 Fabian(1983)의 개념으로 ‘시공간적 거리두기(allochronic distancing)’라 한다. ‘시공간적 거리두기’는 공간적인 차이를 시간적인 차이로 인식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신과 타자의 문화적, 경제적 차이를 ‘시간적 거리’로 설명함으로써, 자신을 중심에 두고 다른 문화를 비교하는 사고방식이다.

이러한 ‘시공간적 거리두기’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살펴 볼 때 쉽게 찾아볼 수 있다. ‘made in China’로 대표되는 싸고 질이 나쁜 이미지로 대표되는 저발전국가들의 이미지는 ‘made in Korea’가 은연중에 우월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대로 ‘made in USA’으로 나타나는 이미지는 ‘made in Korea’가 상대적으로 나쁘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에는 동일선상에 ‘made in China’, ‘made in Korea’, ‘made in USA’가 놓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미국 것이 가장 좋은 것, 그 다음은 한국, 그 다음은 중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순위 매겨진 이미지는 곧 국가의 이미지로 변환되어 살기 좋은 나라의 순위, 잘 사는 나라의 순위, 국민성의 순위, 역사적으로 발달한 나라의 순위 등 대부분의 인식에서 같은 잣대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국가의 가치를 한 가지 척도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없다. 각각의 분야에 따르는 기준이 모두 다를 것이다. 그리고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제각기 다른 환경적·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도 다르다. 그에 따라 각 나라의 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또한 모두 다르다.

이러한 문화편견에서 미래로 상정하는 서양의 경험은 그 지역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것으로 혹시 그것이 이곳에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서양에서 나타났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과 비슷한 모습에 대한 기대가 그 지역의 경험에서 도출될 수 없듯이, 제1세계의 과거가 제3세계의 현재가 아니며, 제1세계의 미래는 제3세계의 현재가 될 수 없다.

이렇듯 각 나라의 여러 가지 배경과 사고방식 등이 다름에도, 비교할 때에는 일직선상에 배열하여 서열화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와 같은 ‘시공간적 거리두기’적인 사회현상과 사고방식의 틀 속에서는 세계화의 정신과 다문화 이해를 길러주지 못할뿐더러 서양의 나라들은 선진국이며 우리보단 앞선 나라이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나라들은 후진국이며 우리보단 못한 나라라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편견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백인들은 능력이 뛰어나고 멋진 사람들, 유색인종들은 능력이 떨어지며 게으른 사람들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다문화 이해의 본질적인 목적에 맞지 않을뿐더러 서로 다른 여러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 의사소통하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IV. 역사적 관점을 활용한 문화편견 해소방안

1. 문화편견 해소를 위한 학습방향

문화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의 모습과 현상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교육방법으로서 역사적 관점의 활용은 다문화 이해에 많은 시사점을 갖고 있다. 역사적 관점의 활용은 과거를 소재로 하여 시간의 흐름, 사건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한 사고를 통해 과거의 인간 활동을 이해하고, 그것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관을 갖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역사적 관점의 활용은 학생들의 역사 인식 능력을 신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른 사회와 타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시야를 기를 수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 부딪히는 많은 갈등을 해소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이해를 “어떤 하나의 문화가 갖고 있는 논리와 기준을 가지고 다양한 모든 현상들을 규정하려 하지 않고, 각 현상들의 형성과정 및 배경과 환경들을 종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현상을 이해하려는 방식”로 정의하고, 이를 위한 학습단계를 구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역사적 관점을 각 단계의 학습활동에 도입하였다. 학습활동에 도입되는 학습 자료에 역사적 사건과 사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역사적 사건과 사료들을 분석하고, 과거와 현재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게 활동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 나눔으로써 문화편견에 대하여 알고, 다문화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습방안을 구안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아닌 초등학교에 다니는 일반 학생이다. 그리고 문화편견 해소를 위한 학습의 목표는 역사적 관점의 활용을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신화와 편견, 고정관념 등을 해체하고, 문화적 편견에 의해 발생하는 차별 현상을 비판적으로 이해하여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2. 문화편견 해소를 위한 학습단계

역사적 관점을 활용한 다문화 이해 학습방안에서 일차적인 목표는 역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는 것과 그 문화들 간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할 때 자

기중심적인 관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자신과 다른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받아들이는 것, 즉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차적인 목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관점을 활용한 다문화 이해 학습방안을 세 단계를 거치는 과정으로 개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편견 발견하기’ 단계로서 학생들이 은연중에 자신의 사고 속에 내재하게 된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발견하게 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차이 인정하기’ 단계로서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의 차이의 원인을 이해하고,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그들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가치를 인정해 주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문화의 보편성 이해하기’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상호교류의 흔적을 확인하고, 다양함 속에서 보편성이 존재함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단계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문화에 대한 편견을 벗고, 각각의 문화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문화편견의 해소를 위한 학습단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편견 발견하기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나가기 위해 성, 다문화, 인종 장애, 사회계층, 종교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교육함으로써 특정부분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며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고 편견에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은 문화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도록 함으로서 특정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기존의 가지고 있는 사고 속에서 편견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첫 번째 단계 ‘편견 발견하기’에서는 학습 과정 안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학생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의 주류 중심, 국가주의적, 서구 중심의 사고인 오리엔탈리즘 및 단일민족주의에 대한 환상과 등과 같이 학생들의 사고에 내재되어 있는 비뚤어진 문화를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단계이다.

먼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인종과 문화적 우수성의 관련에 대한 편견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한 시사 자료를 통해 편견 때문에 생기는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한다. 그런 후에 인종차별 및 문화적 편견이 나타났던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 문화적 편견의 나타나게 된 유래를 알아본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보여주고, 어떻게 하면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토의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

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게 내재화된 문화를 발견하게 되고, 그 문화 속에서 타 문화를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즉 다양한 문화에 대한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 등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편견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갖게 하는 단계이다.

나. 차이 인정하기

낯선 문화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과 새로운 문화를 향유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은 풍부한 문화 감수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문화 감수성 발달은 문화 간 차이의 존재를 지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차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풍부하게 하는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 감수성의 발달은 궁극적으로 다문화 이해의 기초를 만든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른 문화와의 차이를 인정하게 하는 활동을 한다. 이 단계에서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 살아가는 지리적 환경, 역사적 배경 등이 다름을 알게 하여 자신과 다른 문화는 나와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의해 발전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한다. 그리고 다른 문화는 자신과 다른 역사적, 사회적, 지리적 환경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한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과 다른 문화, 즉 주류집단과 주류문화에 의해서 비주류, 주변 문화로 전락된 문화 및 그 문화권의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는 단계이다.

전 단계에서 역사적으로 편견을 갖게 된 유래를 알고, 그 편견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면 이번 단계에서는 세계에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이유를 파악하는 활동을 한다. ‘차이 인정하기’ 단계에서는 학습활동에서 다루는 세계지리의 내용들과 역사적 배경 등을 종합하여 왜 이러한 문화적 특징이 나타났는지에 대해 파악하여 다양한 문화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차이점에 대해 이해하고 그 문화를 인정하는 계기를 갖게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적 요소들에 대하여 올바른 시각으로 대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

다. 문화의 보편성 이해하기

다문화의 평화적 공존을 위해서 모두가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새로운 소수 집단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은 긍정적이지 않다.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지만 이를 애써 외면하는 단일민족국가라는 문화적 배타성은 공

존과 상생 보다는 소외와 차별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속에 내재된 보편성을 발견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세 번째 단계는 문화의 보편성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자신의 문화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비교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 다양함 속에 존재하는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보편성을 발견하는 단계이다. 이를 통해 다른 문화를 다양한 가치로서 받아들이고,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 사이에 보편성이 존재함을 이해하게 한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는 보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음을 느끼게 하여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를 배우게 된다.

이 단계의 학습은 다양한 문화에 대해 조사하고 비교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러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탐구한다. 이를 통해 문화에는 흐름이 있고, 보편성을 갖고 있음을 이해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문화의 흐름 속에서도 각 지역의 지리적 환경, 역사적 배경, 사회적 상황에 따라 적응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살펴보고 다양한 문화가 생기는 과정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또한 각각의 문화가 가지는 가치와 특징을 탐구해 봄으로써 자문화중심주의, 문화사대주의가 아닌 세계적·다문화적 시야와 가치관을 지니게 한다.

3. 학습사례

가. 단원의 지도 계획

교수·학습 과정안은 앞서 거론한 세 가지 단계, 즉 '편견 발견하기 - 차이 인정하기 - 문화의 보편성 이해하기'에 맞추어 계획하였다. 먼저 1차시에는 전체적인 학습안내를 하도록 하였다. 다문화 사회,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을 돋기 위해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며 아동들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하였다. 2차시에서는 세계지리에서 다루는 기본 지식인 세계지도와 지구본의 특징과 쓰임을 알고 세계지형을 알아보는 활동을 한다. 3차시에서는 우리나라와 관계가 깊은 나라들(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의 위치와 자연환경, 생활 모습 및 우리나라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 다룬다. 4차시에는 3차시에서 다루지 않았던 동남아국가 및 제3세계 국가들을 다루어 다문화사회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문화에 대한 편견에 대해 다룰 것이다. 5차시는 여러 기준에 따라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분류하는 학습을 할 것이고, 6차시에는 우리나라와 경제적, 문화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조사하는 학습을 할 것이다. 그리고 7차시에서는 다른 문화들이 우리 문화와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토의하게 하고, 그 차이 때문에 그 문화를 미개

한 문화 또는 우수한 문화로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한다. 마지막으로 8차시에서는 여러 문화들을 살펴보며 다양성을 알아보며, 그 속에 존재하는 보편성과 상호관계에 대해 조사·발표하는 수업을 계획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교육과정 틀 속에서 문화편견 해소를 위한 학습단계를 가미하였으며, 그에 해당하는 차시인 4차시, 7차시, 8차시의 교수·학습 과정안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위에서 다루었던 문화편견 해소를 위한 학습단계인 ‘편견 발견하기 – 차이 인정하기 – 문화의 보편성 이해하기’의 순서대로 학습을 진행하였다.

나. 문화편견 해소를 위한 학습의 개발 방향

다문화 이해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도 계획을 재구성한 것을 바탕으로 역사적 관점을 학습활동에 적용하였으며 교수·학습 과정안을 구안함에 있어 다음 사항들에 주의점을 두었다.

첫째, 수업은 민주적이며 개방적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는 다양한 발문을 통해 학생들이 여러 가지 역사적 사료 속에서 스스로 학습 문제를 찾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전체학습의 형태뿐만 아니라 모둠 활동을 통해 모둠 구성원들끼리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토의 활동 및 조사활동을 하는 활동들로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 및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있는 편견에 대해 의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수업에서 제시되는 여러 가지 사료들은 다문화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아동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그 사료들을 통하여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피부색으로 문화와 사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시각을 갖도록 발문을 준비하였다.

다. 문화편견 해소를 위한 학습의 단계별 교수·학습 과정안

1) 편견 발견하기

‘편견 발견하기’ 단계는 2단원 단원의 태도와 관련한 목표를 중심으로 우리와 관계 깊은 나라들에서 ‘다양한 문화에 관한 편견을 찾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라는 학습목표로 수업을 구안하였다. ‘편견 발견하기’ 단계의 교수·학습 과정안은 다음 <표-3>과 같다.

<표 3> ‘편견 발견하기’ 단계의 교수·학습 과정안 예시

단원	2 - ① - ② 우리와 관계 깊은 나라들	차시	4/14 차시
학습 주제	다양한 문화와 우리나라의 관계	학습 형태	비교학습
학습 목표	다양한 문화에 관한 편견을 찾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단계	학습 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과 인종과의 관계를 짹지어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 생각해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짹지은 후 이유를 이야기하게 한다. ◆ 학습목표 확인하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다양한 문화에 관한 편견을 찾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div>	4 1	※ 직업과 인종의 관계를 짹지 을 수 있 는 PPT
전개	사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틴 루터 킹의 연설문 “I have a dream” 분석을 통해 편견에 대한 생각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설문 “I have a dream” 알 수 있는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 봅시다. - 당시 미국에 있던 백인은 흑인을 어떤 태도로 대하였나요? - 왜 그러한 태도를 가졌을까요? - 자신이 당시 미국에 살았던 흑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백인을 만날 때 기분이 어떨까요? 	10	※마틴 루터 킹 연설문 “I have a dream”
	사료 와 시사 문제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세인 교수의 이야기’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살았던 시대 비교를 통해 우리 사회의 문화편견 파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세인 교수는 어떤 사람인가요? - 우리 사회에 있었던 ‘후세인 교수 이야기’를 보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살았던 상황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후세인 교수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였을까요? 	10	※‘후세인 교수의 이야기’에 관한 PPT ◎ 모둠별 토의를 통해 문제의
	관련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색의 차이로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 인종차별이나 문화편견과 관련된 사례 찾아보기 		

	찾기	- 우리 사회에서 인종차별이나 문화편견과 관련된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0	심각성을 느끼게 한다.
정리	느낀 점 정리	◆ 다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편견들의 사례를 보고 느낀 점 정리하기 - 다문화 사회에서 편견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사건들을 보고 느낀 점과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발표한다.	5	

수업은 먼저 자신이 갖고 있는 편견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여러 인종의 사람들의 모습과 직업을 짹지어 보게 하는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무의식 속에 작용하는 인종에 대한 귀천의식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문을 통해 당시의 인종차별에 대해 생각을 나누어 본다. 그리고 '만약 내가 그 당시의 흑인이었다면?'이란 주제로 감정이입을 해 본다. 이를 통해 인종차별 및 문화편견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통감하게 한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인 '후세인 교수의 이야기2)'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 및 문화의 귀천의식과 같은 문화편견에 대해 살펴본다. 그런 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일어났거나 생길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해 보도록 하여 문화편견의 가져다주는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편견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밖으로 표출하고,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의 문제점을 알고, 편견에서 벗어나게 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인종차별과 관련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문을 역사 사료로 수업에 투입하였다. 그리고 역사적 사건 속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하여 문화편견에서 벗어나려는 자발적인 의지를 갖게 하였다.

2) 차이 인정하기

'차이 인정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라는 학습목표로 수업을 구안하였다. '차이 인정하기'의 교수·학습 과정안은 <표-4>과 같다.

2) 보노짓 후세인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버스에서 심한 욕설을 듣고 모욕죄로 박씨를 고소하였다. 이에 법원은 박씨에게 유죄를 선고해 국내 처음으로 인종차별을 형사 범죄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표 4> ‘차이 인정하기’ 단계의 교수·학습 과정안

단원	2 - ① - [3] 더 가까워지는 세계의 여러 나라	차시	7/14 차시
학습 주제	세계 여러 나라의 특징과 생활 모습	학습 형태	토의학습
학습 목표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단계	학습 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전시 상기 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학습상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세인 교수 이야기’를 상기시키며 인도인에 대한 생각나누기 ◆ ‘인디언’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스트 인디언: 인도 사람 - 웨스트 인디언: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원주민 - 누구에 의해 ‘인디언’의 의미가 둘로 나뉘었고, 왜 이렇게 나뉘었는지 이야기를 해 봅시다. 	1 3	※인도사람 의 모습과 미국 인디 언의 사진	
	학습 목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 확인하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td> </tr> </table>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1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전개	관점 의 대해 토론하기 (활동1) 관점 생각 나누기 의 차이 알아 보기 (활동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영제국은 세익스피어를 인도와도 바꾸지 않는다.”라는 문장에 대해 토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영국은 인도의 지배를 통해 막대한 자원을 수탈하여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 영국사람 입장이 아닌 인도사람의 입장에서 이 문장을 들었을 때의 기분을 생각해 봅시다. (인도를 비하했다) ◆ “마젤란 세계일주 기념 묘비문”을 통해 서구 중심의 관점에 대해 생각 나누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 vertical-align: top;"> <p>1521년 4월 27일, 마크탄의 섬 왕 라프라프 병사들과 싸우던 중 부상을 입고 이 지점에서 였다. 합대는 부하 엘카노의 지휘로 에스파냐에 도착함으로써 최초의 세계 일주에 성공하였</p> </td> </tr> </table> 	<p>1521년 4월 27일, 마크탄의 섬 왕 라프라프 병사들과 싸우던 중 부상을 입고 이 지점에서 였다. 합대는 부하 엘카노의 지휘로 에스파냐에 도착함으로써 최초의 세계 일주에 성공하였</p>	9 9	※PPT ※ 마젤란 세계일주 기념 묘비 문 PPT
<p>1521년 4월 27일, 마크탄의 섬 왕 라프라프 병사들과 싸우던 중 부상을 입고 이 지점에서 였다. 합대는 부하 엘카노의 지휘로 에스파냐에 도착함으로써 최초의 세계 일주에 성공하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젤란은 어떤 사람인가요?(최초로 세계 일주를 성공한 사람) - 마크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마젤란을 죽인 사람=살인자) - 만약 내가 마크탄 사람들이었다면 마젤란 합대를 어떻게 바라보 			

		<p>) 았을까요? (마을의 침략자)</p> <p>◆ 서구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양 사람들 입장에서 마젤란, 콜럼버스 등의 개척한 신항로는 진정한 의미의 신항로일까요? - 마젤란, 콜럼버스, 영국의 동인도회사와 같은 서구 사람들은 동양 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 세익스피어 한 사람만도 못할 만큼 인도의 역사와 문화는 미개한 것일까요? / 마젤란에 대항하여 싸운 마크탄 사람들은 야만적인 살인자일까요?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을 입장에서 판단해 봅시다. <p>◆ 문화의 차이 인정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에 대한 편견은 문화를 비교하는 기준을 우리 문화 혹은 서양의 문화로 정하기 때문임을 알게 한다. - 각 문화의 가치는 서구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가 나타난 환경에 따라 정해짐을 인식시킨다. 	9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발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3	
정리	정리	<p>◆ ‘인디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배운 내용 정리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럼버스는 왜 아메리카 원주민을 인디언이라고 하였을까요? (서구 중심의 관점을 가진 콜럼버스의 오해로 인하여) - 콜럼버스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들을 한 가지 기준으로 비교하지 말고, 문화가 발달한 환경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기준을 통해 가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4	
차시 예고	차시 예고	<p>◆ 차시학습 예고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 별로 한 가지의 문화를 정하고, 그 문화가 발달하게 된 지역적 환경, 역사적 배경, 기후, 사람들의 특성 등을 조사해 오기 	1	

‘차이 인정하기’ 단계의 목표는 역사 사료를 분석하고, 서구 중심의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을 도입하여 역사적으로 상상해 보게 하여 다양한 문화를 서구의 관점으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 지역의 관점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에 있다. 먼저 흔히 알고 있는 ‘인디언’이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알려진 콜럼버스의 오해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고, 이와 같은 서구 중심의 관점과 관련된 사료들로 수업을 이끌어 나간다. 그 예로 “대영 제국은 셰익스피어를 인도와도 바꾸지 않는다.”라는 문장과 세계일주를 기념하는 마젤란 묘비의 문장을 정하였다. 이를 통해 인도를 포함한 동양에도 나름의 역사와 문화가 있지만

서구 중심의 관점에 의해 배제되었음을 알게 한다.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게 하여 기준의 알고 있는 문화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각 문화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데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서양 문화에 대한 막연한 동경에서 벗어나 역사적으로 편박받았던 동양과 그와 더불어 가치가 절하된 동양의 문화에 대해서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문화의 보편성 이해하기

마지막 단계인 ‘문화의 보편성 이해하기’는 단원지도계획에서 선택학습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여러 문화의 역사 사료에서 나타난 공통점을 분석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문화 속에서 공통점 및 보편성을 찾을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모둠별로 다른 문화와 우리 문화의 공통점이 있는 사례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한다. 마지막 활동으로 문화의 공통점이 나타나는 이유를 생각해보게 하여 문화의 보편성을 이해하게 한다. ‘문화의 보편성 이해하기’ 단계의 교수학습 과정안은 <표-5>와 같다.

<표 5> ‘문화의 보편성 이해하기’ 단계의 교수·학습 과정안

단원	2 - ① - ③ 더 가까워지는 세계의 여러 나라	차시	8/14 차시
학습 주제	세계 여러 나라의 특징과 생활 모습	학습 형태	조사·발표학습
학습 목표	세계 여러 나라 문화의 특징과 생활 모습을 통해, 다양한 문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고, 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단계	학습 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동기 유발	◆ 다른 문화의 유물 · 유적들의 비교하기 - 이스터섬의 ‘모아이 석상’과 제주도의 ‘돌하르방’의 모습을 비교하여 봅시다. (큰 머리와 모아져 있는 손모양이 비슷합니다. 큰 돌로 석상을 만든 점이 비슷합니다.) - 이와 같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유물, 유적에서도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 ‘모아이 석상’과 ‘돌하르방’ 사진
	학습	◆ 학습목표 확인하기	1	

	목표 확인	세계 여러 나라 문화의 특징과 생활 모습을 통해, 다양한 문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고, 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전개	사료 분석을 통해 공통점 발견 문화의 공통점 조사 발표 문화의 보편성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 비교를 통해 공통점 발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 사이에는 차이점도 존재하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베난단테 사건'과 한국의 '건포배은'을 비교해 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미신, 민간신앙이 탄압받은 사건입니다.) - 왜 이러한 공통점이 나타나게 되었나요?(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나라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탄압한 것 같습니다.) ◆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의 공통점을 조사하고 발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 별로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의 비슷한 점을 찾고 정리해 봅시다. (가능한 많은 수의 공통점을 조사하도록 한다.) - 조사한 내용을 발표해 봅시다. (다른 모둠이 발표하는 동안 나머지 학생들은 발표하는 문화들의 특징과 공통점을 찾아 활동 지에 적는다.) ◆ 여러 문화 사이에 공통점이 나타나게 된 이유 생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들의 사는 기본적인 모습들은 문화에 상관없이 비슷하기 때문에 - 어느 문화에도 의식주는 꼭 필요하다. 	10 ※'베난단테 사건' 종교 재판문, '건포배은' 「탐라순례도」의 그림 10 10
정리	정리 및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의 다양성 : 문화는 환경에 알맞게 적응하며 발달 - 문화의 보편성 : 문화는 다양함 속에서도 공통점도 있음 - 문화의 상호관계 : 문화는 다른 문화와의 접촉과 교류를 통해 상호 교류함 	5

이 단계의 첫 번째 활동은 동기유발 단계로서 이스터 섬에 있는 '모아이 석상'과 제주도의 '돌하르방'의 모습을 비교하는 활동이다. 두 가지 모두 돌로 만들어진 거상이며, 큰 머리 부분과 두 손을 배 위에 모으고 있는 등 외형적 특징을 찾게 한다. 그리고 두 섬의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공통점이 있는데 호기심을 갖게 한다.

본 활동에서는 문화의 공통점을 찾고,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활동이 주축을 이룬다. 먼저 이탈리아의 민간신앙인 '베난단테³⁾'와 한국의 민간신앙에 대한 기록인 「탐라

순력도』의 「전포배은」⁴⁾에 대하여 비교하는 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 두 문화의 공통점과 공통점의 이유를 생각해 보게 한다. 그 후 모둠 별로 다른 문화와 우리 문화의 공통점을 자유롭게 찾아보게 한다. 이를 통해 문화 속에는 공통점과 보편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게 한다.

다음 활동은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인 여러 문화에서 공통점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찾게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여러 문화 사이에는 보편성이 존재하며, 문화의 차이는 그 문화권의 지리적, 환경적, 역사적인 특징에 의해서 나타남을 알게 한다. 그리고 각 문화는 상호교류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전파가 되고, 수용이 되기도 하며 마찰이 일어나거나 다른 모습으로 변용되며 발전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V. 결 론

다문화 이해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세계인 모두가 공존을 위한 보편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과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리고 역사적 관점의 활용은 과거의 인간 활동을 이해하고 그것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관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다문화 이해 학습에서 역사적 관점의 활용이 문화의 다양성을 알고, 그 속에서 상호교류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 문화의 보편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됨을 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이 아직 생기지 않거나, 편견이 사고에 정착되기 이전인 초등학교 시기의 다문화 이해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편견을 줄이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역사적 관점을 다문화 이해의 한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다문화 이해를 위한 역사적 관점의 활용은 곧 편견해소를 위한 학습으로 ‘편견 발견하기 – 차이 인정하기 – 문화의 보편성 이해하기’의 세단계로 구성되었고, 다문화 가정이 아닌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문화편견 해소를 위한 학습의 효

3) 이탈리아의 농사와 관련된 민간신앙인 ‘베난단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나는 사악한 마법사의 미술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해왔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일 년 중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목요일 밤에 다른 ‘선량한’ 미술사(미술사라기보다 그들 자신의 말대로 하면 ‘베난단테’)들과 함께 벌판에 나가 악한 미술사들과 전투를 하는 것이다. 우리 베난단테들은 손에 회항풀 가지를 들고 싸우고, 악한 미술사들은 수수 가지를 들고 싸운다. 만일 우리가 이기면 올해의 농사는 풍년이 들고 미술사들이 이기면 흉년이 듈다…….”

4) 「전포배은(巾浦拜恩)」의 내용은 조선 숙종 때 제주로 부임한 이형상 목사가 민간신앙의 온상지인 신당 129 개소와 사찰 2곳을 불사르고 심방들을 모두 귀농시킨 사건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되는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편견 해소를 위한 학습은 다문화 이해를 위하여 사람들의 편견에 의해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나 사람들이 다른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가지게 된 역사적 배경을 소재로 수업을 한다. 이러한 수업 활동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느끼고, 다른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기를 수 있다.

둘째, 단일민족이란 자부심이 가져다주는 자문화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으로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문화편견 해소를 위한 학습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각자의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 및 기후 등에 관한 지식에 기초하여 판단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은 무조건적으로 우리 문화가 우수하다는 식의 사고에서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를 비교해서 우리 문화의 가치를 판단하는 사고로의 발전을 이끈다. 따라서 학생은 우리 문화와 여러 문화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우리 문화의 가치와 자부심을 새롭게 다질 수 있게 된다.

셋째, 서구의 문화를 우수한 문화로 생각하는 문화사대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문화편견 해소를 위한 학습을 통해 각각의 문화가 발전하게 된 지리적 환경 및 역사적 배경을 배워 각 문화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인식 속에 박혀진 서구의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던 사고에서 각각의 문화가 발달하게 된 배경을 통해 다른 문화에 대하여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사고로 발전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다문화에 대한 교육이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들의 적응을 위해서 실시되었다면, 본 연구를 토대로 다문화에 대한 교육이 대상이 일반 학생으로 바뀌어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데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현 교육체제에서 역사적 관점을 활용한 다문화 이해 학습방안이 쉽게 도입되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 다문화사회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시도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 개정 교육과정(사회과).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2007-79.
- 권경아(2007). 문화소외계층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방안연구: 외국인 노동자, 여성결혼이민자(자녀포함)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보경(2002). 내면화된 오리엔탈리즘의 서사를 넘어 -‘시공간적 거리두기’의 대안으로서의 영화 <애정만세>-.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선미(2000).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사회과 적용에 따른 문제. *사회과교육학연구*. 4.
- 김한종(2009). 다원적 관점의 역사이해와 역사교육. *역사교육연구*. 8.
- 노선하(2004). 초등사회과에서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청주교육대학교.
- 박세희(2008).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다문화 시민교육 내용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박윤경(2007). 지식 구성과 다문화 문식성 교육. *독서연구*, 18.
- 송종호(2005). 한국의 난민문제: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모색-난민 보호의식의 재검토. *민족연구*, 23.
- 양영자(2008). 한국 다문화교육의 개념 정립과 교육과정개발 방향 탐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양호환(2006). 역사교육의 목적을 다시 묻는다. *역사교육*, 99. 역사교육연구회.
- 임희완(1994). *역사학의 이해*.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 정경미(2009). 반편견(Anti-bias) 교육 프로그램이 편견과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정선영 외(2001). *역사교육의 이해*. 서울: 삼지원.
- 주경칠(1999). *밤의 전투. 역사의 기억, 역사의 상상*. 서울: 문학과 지성사.
- Banks, J. A.(2007).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4th Ed.). Allyn & Bacon.
- Banks, J. A.(2003). Teaching for multicultural literacy, global citizenship, and social justice. *Cultural diversity and education: Foundation, curriculum, and teaching*. Boston: Allyn & Bacon.
- Banks, J. A.(2007). *The Educating Citizens in a Multicultural Society*(2nd Ed.).

- Teachers College Press.
- Carr, E. H.(1993). *What is History?*. Vintage.
- Derman-Sparks & The ABC Task Force(1989). *Anti-bias Curriculum Tools for Empowering Young Children*.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Young Children.
- Fabian, J.(1983). *Time and the Other*. Columbia University Press.
- Garcia, G. W.(2003). Introduction: Giving voice to multicultural literacy research and practice. *Multicultural issues in literacy research and practice*.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 Martin Luther King, Jr. August 28, 1963, "I have a dream", Lincoln Memorial, Washington, D.C.,
- Robertson(1992).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London: Sage Publication.
- Said, E. W.(1978). *Orientalism*. Vintage.
- Saxe, D. W.(1994). *Social Studies for Elementary Teachers*. A Division of Simon & Schuster, Inc.
- Stanford, M.(1994). *A Companion to the Study of History*. Blackwell Publishers.

ABSTRACT

A Study on Learning Method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from Historical Perspective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Kang, Pil-Kyu(Jeju Inhwa Elementary School)

Thus, this thesis is to develop learning methods applying a historical perspective on multiculture understanding to social studies education that may get students to escape the prejudice ranking many cultures in a multicultural society and have an attitude to accept the differences between our culture and others.

First of all, the concepts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and historical preceptive are discussed here.

Applying an historical perspective to multicultural understanding can cover the past of various cultures.

Based on these concepts, this thesis consists of three stages, Finding Prejudice – Recognizing Difference – Understanding Cultural Universality, which apply historical perspective to the whole students' multicultural understanding, not to multicultural families'. The effects and implications of this teaching strategy are as follows.

First, This enables the students look at different cultures on the objective point of view, not from their prejudice. Second, This enables the students understand cultures objectively not from ethnocentrism. Third, This enables the students break from cultural toadyism. Until now, multicultural education have been trained adapting multicultural families and foreigners to our society. But on the basis of this thesis, general students will be have multicultural education and it can help overcoming prejudices.

Key words : Multiculture Understanding, Historical Perspective, Cultural Prejudice, Elementary Social Studies